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찰스 “시크” 셰이버 박사 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 2:49-52)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류역사 가운데 가장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깜짝 놀라 당황한 그녀에게 천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눅 1:28-35)

예수님이 12 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절기가 끝난 뒤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그들이 예수님을 되찾았을 때, 무슨 일로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대답 했지만, 그들은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장기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역사의 한순간인 오늘(2020 년) 나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코로나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까?”

- 중국시장에서 비위생적인 고기를 팔아서인가? 한사람이 걸린후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 사스(SARS), 에볼라(Ebola), 후천성면역결핍증(HIV)같은 병은 몇 년에 한번씩 순환적으로 생기는 것인가?
- 믿지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라는 말씀처럼 (민 11:33).
- 인류의 죄 때문에 망가져버린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인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롬 8:21, 23).
-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에게 더 가까이 부르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

몇 백만명의 사람들이 서로를 경계하며 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병이 옮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 학교, 스포츠, 여가 활동, 쇼핑 등으로 항상 바쁘게 살던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집에서 하루종일 매일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의를 끌고 있지 않을까요?